

## 3 뉴스클리핑

##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 시스템반도체·5G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원문보기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했다. 핵심기술 유출을 막아 국부를 지키고 안보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술 등이 신규 지정되고 근거리 무선통신 등 효용을 다한 기술은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했다

## ▶ D램 슈퍼사이클 불붙었다

원문보기

D램 현물가격이 최근 잇따라 오르면서 D램 고정거래가격이 이르면 이달부터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D램 시장의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슈퍼사이클(초호황)이 1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전날(19일) DDR4 D램(8Gb 기준) 현물가격은 전월 대비 0.14% 증가한 3.456달러를 기록했다.

## ▶ 반도체 '칩'하나 때문에...글로벌 후업계 잇달아 감산·생산중단

원문보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 돌입에 나섰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수급 차질의 장기화를 우려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최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장 문을 닫은 데 이어 독일 자를루이 공장의 가동을 내달 1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 ▶ 2022년 미래차 38만대...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18% 달성

원문보기

정부가 올해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빅3' 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新)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빅3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2022년까지 세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2%, 파운드리 점유율 18%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 3차 반도체 전쟁과 우리가 나아갈 길

원문보기

우리가 반도체 칩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에는 약 40개, 컴퓨터에는 약 60개, 올레드 TV에는 약 120개, 자동차에는 약 300개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다. 어느 나라의 어떤 반도체 회사가 어떠한 반도체를 생산 판매하느냐가 그 나라의 산업 경제를 좌우한다. 지난해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가 수급할 수 없어 스마트폰 사업이 어려워지고 올해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독일 폭스바겐, 미국 포드, 일본 도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

## ▶ '7나노 CPU' 자체 제작하겠다는 인텔...이외 제품은 삼성·TSMC에 맡길듯

원문보기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2023년에도 주요 제품의 상당수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공정 개발에서 뒤쳐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투트랙 기조'가 확대될 전망이다.